

전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 빛났다

“위기를 기회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

민주당 문택규 전북도당 위원 군산시장 출마 선언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국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전북도는 생태관광지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내 우수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202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생태관광 중간점검 및 집중토론을 추진하여 시군별 개별 컨설팅단을 구성,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결과, 도내에서는 2014

년 고창 고인돌 운곡습지에 이어 2번째 국가생태관광지탄생의 결실을 거뒀다.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은 저층형 산지습지로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이며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4개의 습지들로 이루어진 월영습지는 현재 1개의 습지가 복원이 완료되어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정읍사 오솔길과 연계하여 천천히 걸으며 자

연을 맡겨 느낄 수 있다.

솔티숲은 인근 송죽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마을숲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야생화 등 생태해설 탐방을 비롯하여 과거 화전민터, 초빈 등 역사문화체험, 마을의 특산품인 모시잎을 활용한 떡 만들기체험, 다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모시잎을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각종 마을사업을 비롯해 8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자체 연금을 매

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활발한 협의체 운영으로 환경부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정읍시에는 올해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태관광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홍보 등 각종 혜택이 이뤄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내 생태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문택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이 25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군산시장 브리핑을 찾은 문 위원장은 “최근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위기설, 그리고 골목상권 붕괴 등 잇따른 악재로 군산시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면서 “민선 7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옥산면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몸을 던져 일했던 열정과 청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기에 빠진 군산 공동체를 살려 모두가 꿈꾸는 ‘행복지수 1급 도시 군산’을 건설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데이터 망과 네트워크를 가동해 최단시간내 취업중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자리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창업지원센터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형 문화 아시안 개성, 철길 복원 열차투어, 밤이 아름다운 군산, 고군산군도 관광특구 지정, 예술의 섬(군산내항 인공섬 금란도) 개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스포츠 복지 도시 군산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25일 전주 전북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장애인체육회 제15차 정기 이사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18년 사업계획서의 및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토론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축질병 청정도시 조성 총력전

도, 방역·축산물 안전사업 637억원 투입

전북도는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구제역, AI 청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6개 분야에 6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축방역사업에 △가축방역사업 373억원,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 39억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25억원, △9개 도자재방역사업 61억원 등 598억원이며, 축산물안전사업에 △도축검사 운영 36억원 △축

산물 HACCP 컨설팅사업 3억원으로 총 39억원이다.

도관계자는 “축산관련 단체 및 축산농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해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 및 주요 가축질병 예방 근절 발생 최소화 축산농가의 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전북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북도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은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전북의 귀한 딸과 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에서 출발해 학교장을 거쳐 전주교육장, 전북연수원장으로 근무한 38년 동안의 경험과 현장교육 전문성, 교육행정 실무능력으로 전북 교육의 문제점을 타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육장은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겨

냥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무너지고 교실이 위태롭고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그 실상을 모르고 있다”며 “전북교육이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것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이 지난 수십년간 대거 진출하면서부터”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게 안심과 신뢰를, 교사와 교직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주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본질을 구현하는 참 교육감이 돼 전북교육 위상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로컬푸드 성지로 도약 발돋움

전북도, 지속성장 위한 다각적 노력 시도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성지’ 전라북도가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은 2012년 47.8억원에서 지난해 866.7억원으로 6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다.

로컬푸드 매장 개소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 33개소가 성업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88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

전국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액은 작년말 현재 3,565억원으로 농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북도는 현재의 로컬푸드 시스템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로컬푸드 매장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이전까지 로컬푸드 매장은 도시나 읍면동 소재지에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 확장이 큰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략이다.

이 같은 계획이라 지난해 12월 30일 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덕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신선농산물과 가공품 등 28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에 이어 올해 신규사업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과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여 전북도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허금양(1959. 4. 15.생 2017. 8. 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장인혜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7년1375 상속한정승인 판사 장인혜
- ▶ 피상속인: 망 허금양(1959. 4. 15.생 2017. 8. 1. 사망)
- ▶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뽕나무3길 30 (인후동 1가)
- ▶ 공고인: 허창
-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7. 12. 26.
- ▶ 공고기간: 2018. 1. 26. ~ 2018. 3. 25.
- ▶ 주소 (청구 대리인 김준영의 주소) 전주시 덕진구 뽕나무1길 9 (덕진동 1가,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010-3703-781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